

여·야, 사전투표에 사활... 호남 민심 잡기 총력전

민주, 송영길 대표 광주·전남 방문 유세 사전투표 참여 호소
국힘, 이준석 대표 4일 광주에서 사전투표 ... 2030 집중 공략

20대 대통령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체적인 판세는 여전히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양강 구도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후보 진영에서는 이를 앞두고 다가온 사전투표에 승부를 거는 흐름이다. 지지층의 사전투표 참여를 호소하며 총력전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호남에서도 1일부터 사흘간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광주·전남 방문과 4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광주 사전투표 등이 맞물리면서 사전투표를 앞두고 '호남 민심'의 지지 확보를 위한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다.

〈관련기사 3·4면〉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선을 일주일 앞둔 전체적 판세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접전 양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진보와 보수의 진영 결집 양상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는 흐름이다.

이재명 후보 진영에서는 대선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면서 그동안 관망세를 보이던 진보 성향 유권자들의 점차 결집하면서 지지율 상승세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네거티브 공방 속에서도 TV 토론 등을 통해 이재명 후보가 더 준비됐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문재인 정부에 실망했던 유권자들이 점차 마음을 열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이 후보가 제시한 정치교체와 통합 정부론에 대한 호응도 기대 이상이라는 자체 평가다. 이런 추세라면 막판 대역전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반면, 윤 후보 진영에서는 투표 용지 인쇄 전의 야권 후보단일화 결렬 이후, 위기감을 느낀 보수 성향 유권자들의 결집이 강하게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특히, 정권교체를 원하는 민심과 보수 진영의 텃밭인 영남 민심의 결집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서 수도권 판세에 영향을 미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윤 후보 진영에서는 이러한 흐름이라면 여론조사가 금지되는 3일 이전까지 이 후보와의 일정 격차를 유지하면서 정권 교체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접전 양상에 따른 진영 대결 흐름이 나타나자 양강 후보 진영에서는 오는 4-5일 이뤄지는

사전투표에 지지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사전 투표의 흐름이 대선 당일의 투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여기에 코로나 19 대확산으로 투표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사전투표에 승부를 건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각 후보 진영에서는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음성·문자메시지를 통해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한편 지인에게 사전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전화걸기 캠페인 등을 병행하고 있다. 또 사전투표 당일에는 유세차를 총동원, 골목 골목을 돌면서 사전투표에 나서줄 것을 호소할 예정이다.

광주·전남 등 호남에서도 사전투표를 앞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치열한 경쟁전을 펼치고 있다. 지난 19대 대선에서 전국 평균 사전투표율은 26.06%로 집계됐으나 광주는 33.67%, 전남은 34.04%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 광주·전남 사전투표율 목표율 40% 이상으로 잡았다. 접전의 판세인데다 진영 결집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호남 민심의 전략적 선택이 사전투표에서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고희 출신의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3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광주·전남지역을 방문, 사전투표에 나서줄 것을 호소할 예정이다. 이 후보도 3일 광주 방문을 검토했으나 이번 대선의 승부처인 수도권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국민의힘도 사전투표를 통해 호남에서 변화의 바람을 이끌어낸다는 입장이다. 윤 후보에 호감을 보이고 있는 호남지역 20-30대 유권자들을 사전투표에 대거 나서게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젊은 세대의 아이콘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오는 4일 광주를 방문, 사전투표에 나서며 함께 해줄 것을 호소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이를 통해 호남에서 윤 후보의 두 자릿수 지지율을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전투표 전에 홍준표 의원 등 전국적 인지도가 있는 인사들의 호남 방문과 함께 조수진 최고위원 등 호남 연고가 있는 당내 인사들을 총동원, 윤 후보 지지와 함께 사전투표에 나서줄 것을 호소한다는 방침이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가 1일 오후 서울의 한 카페에서 회동한 후 손을 잡고 함께 이동하고 있다. 〈민주당 선대위 제공〉

이재명·김동연 통합정부 합의... 후보 단일화 수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선 후보가 1일 전격회동을 하고 통합정부 구성 등에 관한 정치교체 공동선언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사실상 후보 단일화 수순에 접어들어 가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김동연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의 한 카페에서 회동한 뒤 '정치교체를 위한 공동선언'에 합의했다.

공동선언에는 ▲대통령 임기 1년 단축 ▲새 정부

출범 1년 이내 '제7공화국 개헌안' (분권형 대통령제·책임총리 등)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혁, 국회의원 명목특권 폐지, 국민소환제, 국회의원 3선 초과 연임금지 등을 담은 정치개혁 법안을 대통령 취임 전 국회 제출 ▲국가주택정책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후보는 회동 후 "정치개혁에 뜻을 함께하고 거기에 더해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함께 격정하는 모든 정치세력들이 같이 통합의 정치, 통합의 정부,

국민 내각을 만든다는 데 대해 합의했다"면서 "힘을 합쳐서 새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후보도 "오늘 이 후보와 이야기를 하면서 정치교체 및 통합 정부에 대해 의견을 같이 했다"면서 "오늘 정치교체와 통합정부의 운영과 구성에 대한 합의를 이루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조만간 후보직을 사퇴하고 이 후보의 선거운동을 지원할 것으로 민주당은 내다보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한국에너지공대 오늘 개교... 학부 108·대학원 49명 입학식

세계 유일의 에너지특화대학 한국에너지공과대학(켄텍·KENTECH)이 2일 개교한다.

한국에너지공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나누시빛가람동 신축 다목적광장(혁신로 200)에서 '제1회 입학식'을 연다고 1일 밝혔다.

한국에너지공대는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에 설립안이 채택된 이후 5년 만에 신입생을 받게 됐다.

첫해는 학부생(단일학부) 108명, 대학원생 49명으로 시작한다. 교수 48명, 교직원 56명이 채용된 상태다.

이날 입학식에는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정승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학교법인 이사장(한국전력 사장), 김종갑 전 한전 사장 등이 참석한다. 한전공대 설립단장을 지낸 정재천 기획처장 등 4명은 정부 표창을 받는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문 대통령 "일본, 역사 앞에 겸허해야"

제103주년 3·1절 기념식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서울 서대문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열린 제103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일본을 향해 "일본은 역사를 직시하고 역사 앞에 겸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제 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해 양국이 해법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본이 역사에 대해 제대로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

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한때 불행했던 과거로 인해 떠나는 이웃 나라 국민의 상처를 공감할 수 있을 때 일본은 신뢰 받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한일 간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문 대통령의 메시지로 풀이된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한일 양국의 협력은 미래세대를 위한 현대의 책무"라며 "우리 정부

는 코로나와 기후위기, 그리고 공급망 위기와 새로운 경제질서에 이르기까지 항상 대화의 문을 열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 속에 국제질서가 요동치고 있다"며 "힘으로 패권을 차지하려는 자국중심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으며 신냉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한국도 '힘'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독립운동의 정신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강대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의 역사를 우리가 주도해 갈 힘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라고도 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8년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2]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메르세데스-벤츠 광주 수완 전시장 & 서비스센터 2022년 3월 Grand Open!

■ 딜러십 위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65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2-0001 & 확장 서비스센터 (062)376-2557 광주광역시 서구 상망대로 1041(학정동)
MB 민중중고차 광주 전시장 (062) 945-0007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16(수완동)
프론트 서비스센터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이남대로 603(남광 20소초동) 수완 서비스센터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20(수완동)
광주 제2 딜러십(오르 역점)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65(도림동)